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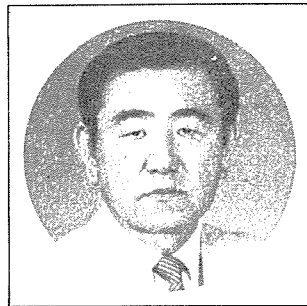
“獨立된 「統計전담기구」 필요”

- 통계 專門研究개발팀 구성도 建議

『經濟社會구조가 고도화되고 情報化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종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이와 함께 國家發展 정책이 전환되면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統計분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韓國統計學會 朴贊葵회장(中央大 응용통계학과 교수)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급히 개발, 보완해야 할 國民福祉수준의 각종 측정지표, 인력개발에 필요한 임금 및 고용통계, 지역간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통계, 국민경제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業 부문 통계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기존통계는 계속 발전시켜 각 부문의 통계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朴회장은 특히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능을 전산화하여 통계의 精度를 높여 나가는 한편 통계정보의 신속한 제공



으로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누구나 손쉽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각 기관간 중앙과 지방간의 統計電算網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또한 통계의 전문적인 技法이 요구되고 있는 통계작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특성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분석기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통계작성능력의 배양과 통계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통계의 質을 꾸준히 개선하여 통계에 대한 國民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제도는 우리의 여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제도를 모

방하여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고 그간 다섯차례에 걸친 경제개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데 치우쳐 통계개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게 사실이지요』 朴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통계위주의 전국단위통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국민생활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가 크게 부족하여 국가통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통계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 고급인력의 통계업무기피 등이 통계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통계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통계분석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기관의 빈약으로 인한 국가기본통계의 부실화로 통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통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

들에게 통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매스컴을 통한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가 생산해 내고 있는 통계가 완벽하게 훌륭한 통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통계작성이론상 별 하자가 없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대상자들의 불성실이나 방법론의 미숙으로 인해 精度가 떨어지는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만큼 선진통계기법의 도입, 활용이라든지 우수한 통계전문요원의 확보등으로 보다 정확한 통계생산에 힘써야겠습니다』 박회장은 UN에 제출되는 우리의 통계가 세계 상위 20위권에 들어가는 우수한 통계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우리의 현실이나 능력에 비해 우수한 통계를 생산해 낸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기본통계를 통계전담독립기구에 흡수, 통합하여 각종 통계가 일관된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통계작성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통계개발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 産業협동체제를 강화하여 통계전문인력

을 효율적으로 양성 확보하는 동시에 선진통계기법을 연구,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따라서 통계학회에서는 통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는 對 政府 建議書를 작성, 국무총리실 행정개혁위원회에 7월말경 제출할 예정인데 이 건의서에서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통계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精度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 학자들로 구성된 통계연구개발팀의 구성」을 건의할 작정이라고.

박회장은 현재의 경제기획원 통계국의 조직이나 인력만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통계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므로 통계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통계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각종기본통계를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계학회 설립초에는 통계학의 학문적인 개발과 회원확보등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통계이론이나 통계적방법론까지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對 국민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박회장은 보다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학회내에 통계계산연구회, 통계조사연구회, 교육상담연구회등을 두어 각종 세미나, 강연회등을 통해 통계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한다.

『1971년 창립된 한국통계학회는 이제 성년 학술단체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임원진을 비롯한 회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통계학의 발전은 물론 통계가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작정입니다』 박회장은 통계에 관련된 각종 단체 및 기업체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통계의 질적 개선과 폭넓은 활용을 위해 힘쓰는 한편 日本통계학회등 국제학회와의 교류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이와함께 학회가 아직은 영세한 편이므로 학회의 기반구축에 주력해 나가면서 회원들의 친선도모를 위한 친목활동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현재 3백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동학회는 제9대 회장에 박贊燾중앙대교수를 비롯 부회장에 李載昌고려대교수, 총무이사에 朴聖炫서울대교수가 맡고 있다. 이밖에도 金宇皙서울대교수가 「통계학연구」편집위원장을, 尹祥雲연세대교수가 「응용통계연구」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呂運邦KDI전산실장(통계계산연구회)·金鍾浩동국대교수(통계조사연구회)·宋文燮서울대교수(교육상담연구회)가 산하연구회회장으로 있다. (權光仁 記)